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심사 돌입

신안 다도해~충남 서천 989㎢…문화재청, 이달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 제출

전남 다도해를 둘러싼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돌입한다.

21일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가칭 '한국의 서남해안 다도해 갯벌'(영어명칭 'Korean South and West Coast Tidal Flats, Dadohae Getbol')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다.

갯벌은 크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나뉜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분야로 등재 신청을 한다. 제출기한은 통상 등재를 신청하는 해의 2월 1일까지다.

신청 대상지는 신안 다도해 갯벌(804.59㎢), 충남 서천 갯벌(68.39㎢), 전북 고창 갯벌(59.85㎢), 전남 보성~순천 갯벌(57.02㎢) 등 총면적 989.85㎢다.

가장 중요한 등재 신청 서류 심사와 오는 8~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 실사, 그리고 전문가 평가회의 등을 거쳐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6~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개최지는 올여름 결정)에서 결정된다.

등재가 확정되면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자연유산으로는 국내 두 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서남해안 갯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돼 2010년 '서남해안 갯벌'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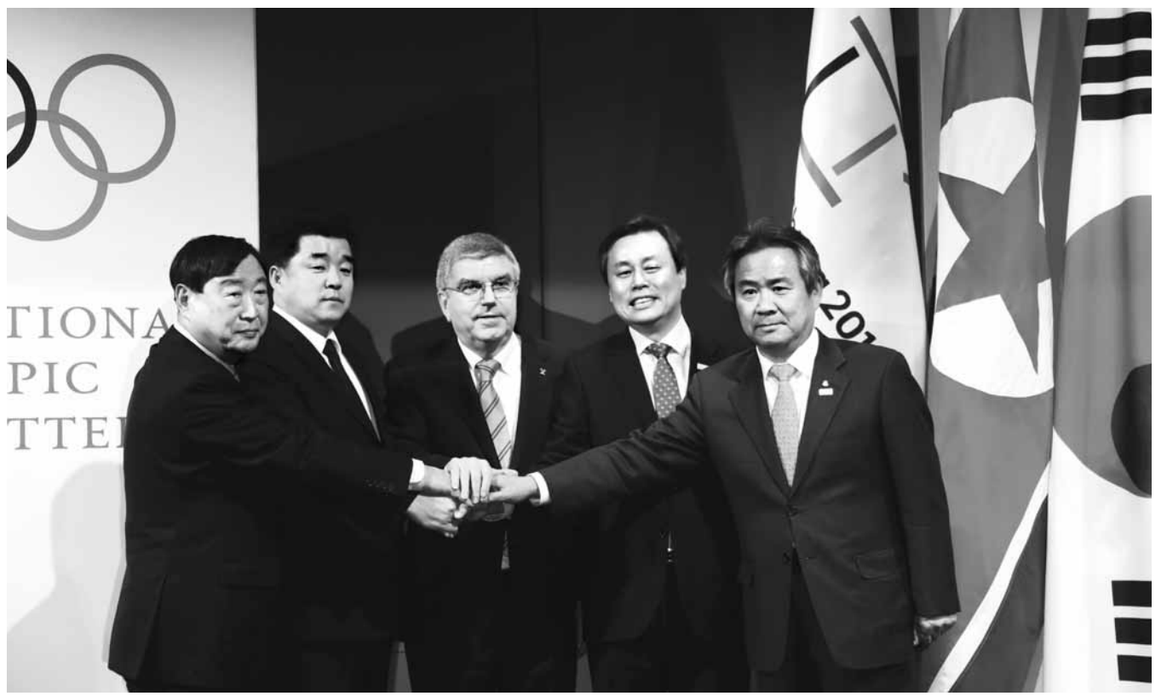
서남해안 갯벌은 다도해 갯벌의 전형(신안), 하구형(서천), 개방형(고창), 만입형(보성~순천) 등 다양한 갯벌 생성 과정을 설명한다. 바다와 육지에 2200여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30만2천여 개체가 출몰하는 철새 천국이기도 하다.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고경남 연구기획팀장은 "세계 최고라는 인증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으니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북한, 평창올림픽 5개 종목 22명 참가

IOC 주재 남북 담판서 확정
피겨 페어·쇼트트랙·스키 등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개·폐회식 입장때 한반도기
국가 연주시 '아리랑'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왼쪽부터), 김일국 북한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손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 담판에서 모두 확정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단의 규모를 46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으로 이뤄진다. 북측 기자단도 21명이 방남한다. 애초 10명의 선수와 그와 같은 비율의 임원 10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은 5개 세부종목에 출전한다. 먼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한다. 우리 선수 23명을 합쳐 남북단일팀 엔트리는 35명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5~6명이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2배가량 많다. 북한 선수는 3명만 경기에 출전한다. 역사적인 남북단일팀 사령탑을 맡은 새러 머리 한국대표팀 감독이 북한 선수 2~3명 정도만 합류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이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고도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을 일본에 넘긴 렴대옥-김주식도 구제됐다. 쇼트트랙에선 남자 1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를 받아 평창에 온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선 한춘경, 박일철 두 남자 선수와 리영금 등 세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얻었고, 알파인 스키에서도 최명광, 강성일, 김련향 등 세 선수가 출전한다. 알파인 스키에서 경쟁하는 북한 선수들은 부상 위험을 고려해 기술 종목인 회전, 대회전 종목에만 출전한다.

남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행진한다. 기수는 남북에서 각각 1명씩, 남자 선수 1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구성된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한반도기가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입는다. 단일팀의 영문 축약어는 'COR'이다. 우리나라의 공식 국가명의 영문 약칭은 'KOR', 북한의 영문 약칭은 'DPRK'다. 공동입장과 단일팀은 하나의 'KOREA'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므로 IOC는 두 나라의 명칭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불어 'COREE'에서 따와 약칭을 'COR'로 결정했다.

또 국가 연주 시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바흐 IOC 위원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올림픽 스포츠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북한 선수단은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8일 전인 2월 1일까지 방남해 강원도 강릉·평창에 마련된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하고 북한 선수 22명 전원은 IOC의 대회 도핑 검사를 받는다.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PC)에는 방남하는 북한 기자단 21명을 위한 작업 공간을 배정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IOC가 할 수 있는 건 다했고, 우리는 이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능하면 빨리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IOC가 북한 선수들의 출전 결정권을 지녔기에 그간 말을 아낀 장웅 북한 IOC 위원은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내수면 유휴저수지 자원화 본격화

영광 불갑저수지 국비 15억7천만원 지원

전남도가 내수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저수지를 내수면 수산자원 서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영광 불갑저수지 일원 '내수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15억7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영광 불갑면 불갑저수지 일원 202ha(만수면적)에 31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수지 등 내수면을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은 물론 관광·판매·체험 등과 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 지역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어류 서식 및 산란 시설, 수산종자 방류·육성·관리 시설·어족자원 자원화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행정 지원과 지역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로 일궈낸 성과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내수면 특성을 살려 대외 경쟁력 향상과 미래 어업 기반 조성의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재봉)의 '2018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방일간지 26개사와 지역주간지 42개사 등 모두 68개사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총 55개사에 비해 올해는 13개사가 늘었다.

올해로 창간 66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선도적인 지면쇄신과 경영개선 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신문으로서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획취재, 지면개선, 시민기자 활용, 연수교육사업, 창의주도형사업 등 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경영건전성과 제작·취재·판매·광고 관련 언론윤리강령 준수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사를 선정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민간공원 1단계 쟁점' 1면에서 계속

A심사위원은 "제안서를 모두 검토했으나 주민 100명의 의견을 들은 업체가 단 한 곳이 있었다"며 "시는 우선협상자가 협상과정에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마찰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신속한 사업 추진만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시민심사단 23일 기자회견, "들러리 안 된다"=이번 1단계 심사에 참가한 시민심사단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단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광주시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1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 시민심사단에는 105점 가운데 5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는 30점이 배정됐다. 나머지 70점은 재무구조·경영상태(15점), 사업시행의 안정성(5점), 사업·조직·관리기술(20점),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10점),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20점) 등 계량 평가로 채워졌다. 계량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비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되지 못했다. 시민심사단의 경우 각각의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4곳 전체를 심사하게 하고, 시간 제약으로 질문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B심사위원은 "아파트 높이가 대부분 30~40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지나치게 형식적인 참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2단계부터는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1단계는 이미 공고와 제안 요청서가 확정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자의 제안서에 대한 시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다.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놀분 쓸분 대출
(주)오천경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감원 0622, 법정이자율 :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도명칭 : 광주광역시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장성 북이면 장성땜 10974㎡(3320평) 5억9천
• 완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장흥 수문해수욕장 팬션 등 적합 2346㎡ 분할가능 평당 7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찰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양톨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망좋음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무안 현경 평산리 바닷가 전 4542㎡ 8300만원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백운동 빌라 대지 314㎡ 건물 527㎡ 매도 7억5천
• 고흥군 동일면 팬션 땅 7061㎡ 팬션 267㎡ 8억2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선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팬션 땅 1578㎡ 경관좋음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마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
• 장성 백양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음 2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종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종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종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답 2,240㎡ 매 4억6천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